

#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孝思想 研究

金 周 坤\*

〈차 례〉

I. 結 論	2. 同質性的 孝
II. 孝의 概念과 本質	(1) 事孝와 理孝
III. 佛教歌辭에 나타난 孝思想	(2) 行孝와 化孝
1. 相對性的 孝	IV. 佛教의 孝思想과 衆生教化
(1) 世孝와 出世孝	V. 結 論
(2) 單孝와 廣孝	*參考文獻

## I. 緒 論

우리 古典文學에는 佛教思想이나 그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 수 없이 많다. 印度에서 발생한 佛教가 中國을 거쳐 三國時代에 우리 나라에 전래된 이래, 佛教는 흔히 儒·佛·仙 三教라 하듯이 우리 古典文學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思想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민중의 사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新羅의 鄉歌에서 朝鮮時代의 歌辭文學에 이르기까지 문학 작품에 나타난 佛教的인 요소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불교가사는 불교의 교리 전달이나 포교의 수단에 머무르긴 하였으나, 天主歌辭·東學歌辭 등의 다른 布教歌辭보다도 대중 교화에 기여한 공로가

\*경산대학교 교수

지대했다고 보며, 문학사적으로는 가사문학의 원동력이 되었고 士大夫歌辭·庶民歌辭·閨房歌辭와 더불어 가사문학의 한 갈래를 이루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불교가사에 나타난 사상 연구로는 姜學榮의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와 高光榮의 〈佛教歌辭에 나타난 諸思想研究〉<sup>1)</sup> 등이 있고, 필자의 것으로 〈懶翁和尚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佛教歌辭에 나타난 無常思想研究〉·〈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考察〉·〈佛教歌辭에 나타난 勸佛思想研究〉·〈佛教歌辭에 나타난 因果思想研究〉<sup>2)</sup> 등이 있다.

불교가사에는 淨土思想·因果思想·勸佛思想·無常思想·孝思想·感恩思想·彌勒思想·菩薩思想·輪迴思想·勸善懲惡思想·護國思想 등이 두루 나타나고 있는데, 人道之本이요 百行之本이라 할 수 있는 孝의 思想이 한국불교가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韓國의 歷史를 통하여 볼 때 朝鮮王朝時代는 儒敎를 中心으로 孝와 忠과 禮가 基本이 되어 韓國의 思想과 倫理體系를 確立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孝思想을 儒敎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줄 알기가 쉽다. 하지만 佛敎에 있어서도 《六方禮經》을 위시하여 《阿舍部經典》의 도처에서 父母에의 孝順功德을 말하고 있으며, 《忽辱經》에서는 孝를 善의 극치로 보고 不孝를 惡의 극치로 規定하고 있다.<sup>3)</sup> 다시 말해서 佛敎에서도 엄연히 孝思想이 存在하고 있다. 佛敎에서는 모든 男子를 아버지라 하고 모든 女性은 어머니로 하는 報恩慈愛思想의 극치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하면 佛敎에는 孝가 없는 것같이 생각되지만 儒敎의 孝보다 汎孝의 이라는 特色이 있다.

佛敎는 본래 出家를 中心으로 하여 僧伽(Sanga)를 主로 하는 것이므로 자연 佛敎가 儒家들에게 非家族의이며 非社會的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

\* 본 논문은 1995년도 경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姜學榮,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 明知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 高光榮, 〈佛教歌辭에 나타난 諸思想研究〉, 國民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2) 拙稿, 〈懶翁和尚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 《慶山大學論文集》, 第8輯, 1990.
- , 〈佛教歌辭에 나타난 無常思想研究〉, 《大邱語文論叢》, 第9輯, 1991.
- , 〈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考察〉, 《大邱語文論叢》, 第10輯, 1992.
- , 〈佛教歌辭에 나타난 勸佛思想研究〉, 《嶺南語文學》, 第21輯, 1992.
- , 〈佛教歌辭에 나타난 因果思想研究〉, 《韓國學論叢》, 香山 下廷煥博士 華甲紀念, 1992.
- 3) 朴先榮, 〈宗敎에서의 忠孝思想〉, 《梵聲》, 47號, 1977. 6月號, pp.36-39參照.

지만, 그러나 佛敎 自體는 儒家들의 尺度대로 반드시 非家族的이며 非社會的인 것은 결코 아니다.

儒敎의 孝 倫理가 마치 天子와 百姓과의 關係처럼 絶對的이고 權威的인 父에 대한 子의 絶對的인 服從과 강한 義務 行爲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佛敎의 孝는 어디까지나 父母의 慈愛에 대한 報恩 感謝와 그리고 그 父母로 하여금 成佛케 하는 데 있는 것이 서로 다를 뿐이다.<sup>4)</sup>

본고에서는 李相寶 교수가 펴낸 《韓國佛敎歌辭全集》<sup>5)</sup>에 실려 있는 한국불교가사 70편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가사에 나타난 효사상을 살펴 보려 한다.

研究 方法은 먼저 孝의 概念과 本質부터 살펴 보고 나서 불교가사에 나타난 孝思想을 고찰한 뒤 佛敎의 孝思想과 衆生敎化에 대해서 그 의의를 파악하려 한다.

## Ⅱ. 孝의 概念과 本質

儒敎에서의 孝 概念은 孔子의 中心思想인 〈仁〉이 五常 五德으로 이해되며, 五常의 하나인 孝는 子息이 어버이를 恭敬히 섬기는 行爲로 보았다.

佛敎에서의 수용은 三國時代에 “王權을 중심으로 한 中央集權의 貴族國家 형성의 概念 形態의 表現”<sup>6)</sup>이라고 할 것이다.

佛敎는 원래 自覺을 그 思想的 알맹이로 하고 있는 宗教이다.<sup>7)</sup> 그리고 韓國의 佛敎는 그 傳來 初期부터 계속하여 佛敎를 現世에 있어서의 삶의 實用的인 應用原理와 方法으로 再創造하여 活用해 가는 또 하나의 特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佛敎는 世俗을 否定하고 超世俗을 志向하면서도 결국 世俗을 떠날 수 없으며, 國家와 家庭은 宗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라 말

4) 安啓賢, 《韓國佛敎思想史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3. p.319.

5) 李相寶, 《韓國佛敎歌辭全集》, 集文堂, 1980.

6) 李基白,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韓國研究員, 1978. p.54.

7) 朴先榮, 《佛敎의 敎育思想》, 同和出版公社, 1981, pp.48-53 參照.

할 수 있다.<sup>8)</sup> 淨土教을大成한 唐의 善導(613-681)는 이 《觀無量壽經》에 注疏하여, 父母는 世間的 福之極至이며 佛도 또한 世間的 福田之極이라 하였고, 또한 佛이 佛母를 爲하여 成道後 卍利天에 昇天하여 說法하고 十月懷胎의 恩을 報答하였으니 一般凡夫가 孝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當然한 일이라 한 것은<sup>9)</sup> 佛敎에서 思惟하는 孝의 概念의 一端을 示唆하는 것이다.

佛敎에서의 孝의 문제는 家族의 원리도 宗教에 있어서는 非本質的인 것이라고 속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宗教에 있어서의 世俗과 超世間的 문제를 깊이 검토해 보지 못한 데서 오는 偏見일 것이다. 五大宗教에 있어서도 例外 없이 孝의 思想이 있다.

佛敎에서는 모든 衆生이 다 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佛性〉은 〈부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주체적으로 成佛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佛敎의 人間 尊嚴思想과 平等관이 나타난다.<sup>10)</sup> 뿐만 아니라 모든 存在는 상호관계 속에서만 그 存在가 可能하다고 본다. 이것이 佛敎의 〈緣起〉思想이다. 따라서 人間의 現존재는 무수한 인연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佛敎의 報恩思想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 가운데 父母와 國家와 衆生의 은혜를 중시하고 있다. 佛敎의 孝思想은 여기서 根源하고 있다.

佛敎에 있어서 理想的 人間像의 人格的 屬性은 〈智慧圓滯〉이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智慧롭고 慈悲로움〉 즉 〈맑고 따뜻함〉이다. 이 智慧롭고 慈悲로움은 主體的인 自覺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孝思想은 窮極的 自覺에서 일어나는 智慧와 慈悲에서만 그 正當性이 확보된다.

佛敎는 波羅蜜多(Paramita)라고 하는 人間修行의 方向을 提示했다. 眞理를 알고 智慧롭게 되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알게 하라고 했다 [法施]. 사람들로 하여금 衣·食·住의 不足함이 없도록 하라고도 했다 [財施]. 그리고 사람들을 不安과 恐怖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無畏施]. 이것이 孝요 忠의 精神의 發露이다. 또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道理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攝律儀戒]. 그리고 나아가 善한 일을 찾아 行하라고 하였다 [攝善法拔]. 그리고 善의 극치는 饒益有情이므로

8) 朴先榮, 註3), pp.34-36 參照.

9) 《佛昇 卍利天品經》, 大正17, p.787.

10) 朴先榮, 註3), pp.87-90 參照.

모든 衆生들을 참다운 生命의 主人公이 되게끔 獻身하는 것이 人間의 最高의 道理라고 하였다〔攝衆生拔〕. 이러한 이상이 家庭에서 實現되면 孝요, 이것이 社會에서 實現되면 忠이다. 또 波羅蜜多에는 忍이 강조되고 努力精進이 강조된다. 참을성 없고, 偏狹하며, 猜忌와 嫉妬에 빠져 잘 화내며, 싸움을 일삼고 또 나태하면 그것은 孝도 忠도 아니라고 佛敎에서는 강조한다.

또한 原始佛敎 성전에 孝를 강조한 德目이 있다.

“세상에서 어머니를 恭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또한 아버지를 恭敬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라고 했으며, 또 어버이에 대해서 공순한 아들을 특히 칭찬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梵天이라 하기도 하고 先師라고도 한다. 이는 子息들이 供養해야 할 사람이며, 또한 자손을 사랑하는 자이다.…… 또한 죽어서는 하늘 위에서 즐길 것이다.”<sup>11)</sup>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부모에게 孝道하고 順從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어버이로부터 받은 恩惠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子息이 지켜야 할 德目에서 보면 子息은 父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마음 가짐으로써 奉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첫째, 兩親이 나를 養育했으므로 나는 그들을 奉養한다. 둘째,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한다. 셋째, 가계를 존속시킨다. 넷째, 재산을 相續한다. 다섯째, 先祖의 靈魂에 대하여 적당한 때에 貢物을 바친다. 여기서는 단순한 道德상의 命命으로서가 아니고, 子息의 〈決心〉으로 子息의 자연스런 기분의 발로로서 선뜻 奉仕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父母에 대한 恭敬은 일반적으로 老人에 대한 恭敬도 가르치고 있다. “윗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항상 尊長을 恭敬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사항들이 증대하니 곧 수명과 아름다움과 안락과 힘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강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佛敎에서도 孝思想을 강조하고 있는 德目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佛敎의 孝思想은 自覺에서 일어나는 智慧와 慈悲에서만 그 正當性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佛敎에서의 孝의 本質은 父母와 子息 間에 형성되는 인간관계로서 친자

11) 楊貞圭, 《원시불교》, 비봉출판사, 1981, pp.211-213 參照.

12) 上揭書, pp.211-213 參照.

시간을 가장 원만하게 하는 秩序가 곧 孝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孝는 父慈子孝에서 출발하여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질서 確立에로 擴大되는 것이다.

佛敎에 있어서의 家庭觀은 《六方禮經》·《玉耶女經》·《維摩經》 등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六方禮經》에서는 섬겨야 할 六方, 즉 東西南北 上下가 각각 父母·스승·아내·親族·沙門·從을 가리킨다. 그러기에 “家族倫理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sup>13)</sup> 佛敎는 家庭 안에서의 人間的 애정관계도 煩惱의 원인 중의 하나이고, 깨달음을 妨害하는 要因의 하나이자, 인간의 因緣의 쇠사슬을 끊고 解脫하는 데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存立意義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이 佛經에는 별로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佛經의 《大乘本生地觀經》같은 데서 “아버님 恩惠 높기 山과 같고, 어머니 恩惠 높기 바다와 같다.”고 하였다. 佛敎에서는 일체 萬有는 緣起의 存在요, 緣起의 存在라 할 때 그것은 이미 많은 恩惠를 입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人間이 世上에 태어난 恩惠에는 父母의 恩惠, 社會의 恩惠, 國家의 恩惠, 宗教의 恩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恩惠 중에서 가장 所重한 것이 父母의 恩惠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sup>15)</sup>

이와 같이 佛敎에서도 孝本思想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祖上의 깊은 思想과 哲學이 담긴 우리의 傳統文化는 한 마디로 말하면 孝의 文化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先祖들의 모든 遺訓이 孝本思想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孝子が 될 수 없는 者는 師傳가 될 수 없고, 나라의 忠臣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經典에 나타난 孝思想을 보면, 佛敎의 孝의 本質은 知恩報恩思想을 本質로 하기 때문에 먼저 知恩은 無知의 戒침을 要求한다. 그러므로 知恩은 바로 教育을 말함ियो, 人格完成의 지름길임을 強調하고 있다.

“知恩報恩이 是菩薩行이니 不斷佛種故니라.”<sup>16)</sup>라고 했다. 이 말은 菩薩行도 孝요, 無知를 戒치려고 努力하는 上求菩提도 孝요, 人類共榮에 貢獻하며 奉仕하는 不化衆生도 孝다. 내 父母만을 恭敬하는 것은 孝가 아니다.

13) 불교성전편찬회, 《불교성전》, 동국역경원, 1972, pp.238-239.

14) 金丁煥, 《全人教育論》, 世英社, 1982, pp.181-182.

15) 孫仁銖, 《韓國人의 價値觀》, 文音社, 1979, pp.128-129.

16) 《高麗大藏經》 第六, 《大寶積經》 卷八七, 東國大學校, 4291, p.691.

이웃과 社會人類 그리고 모든 人類에게 慈悲로 보살피는 것이 孝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佛性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小恩은 尙不忘이거나 何況大者지요.”<sup>17)</sup>라고 강조되고 있다. 이 말은 작은 恩惠도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하물며 네 가지 恩惠 가운데서 父母의 恩惠를 《父母恩重經》에서는 十種大恩이라고 표현했으며, 《大乘本生心地觀經》에서는 十種功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大乘心地觀》〈보은품〉에 보면 “慈悲로운 父母님의 깊은 恩惠로 모든 중생이 다 안락한 것이니 인자한 아버지 恩惠는 높기가 태산 같고 고우신 어머니 恩惠는 바다처럼 깊네. 또 이르되 父母가 집에 계시면 해가 뜬 것과 같고 父母가 안 계시면 해가 진 것과 같네. 父母가 계시면 부자로 사는 것과 같고 父母가 안 계시면 가난뱅이와 같네”<sup>18)</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父母恩惠를 知恩하고 報恩하는 길은 兩父母를 양 어깨에 모시고 數千里 되는 須彌山을 求景시켜 드려도 不足한 것이다. 《父母恩重經》에 報恩의 길을 간결하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子息된 사람이 나가서 햇과일을 얻거든 가지고 와서 父母에게 드려라. 둘째, 부모가 병이 나면 떠나지 말고 친히 간호하여라. 셋째, 父母가 그릇된 길을 가거든 깨우쳐 바른 길로 가게 하라.”<sup>19)</sup>라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佛敎에 있어서 孝의 本質은 知恩報恩으로 四種大恩에 報恩하는 것으로 思想的 基底는 輪迴傳生의 奇緣法上에 一切衆生이 우리 祖上 父母兄弟도 아님이 없고 人間心性은 空으로 自性空은 智慧이며 慈悲이기 때문에 智慧의 눈으로 人類에게 내 마음 내 몸처럼 慈悲를 베푸는 것이 最終의 孝라는 것이다.

孝의 形態를 出家時와 父母生時 그리고 父母死後의 孝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出家時의 孝를 보면, 儒敎에서는 人間을 尊重하는 思想이 있거니와 仁의 精神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仁을 實行하는 길은 父母에게 孝道하는 것을 根本으로 하고 있다.

佛敎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出家한 사람이나 在家한 사람이나 간에

17) 上揭書, p.654.

18) “慈父悲母長養恩 一切衆生皆安樂 慈父恩高如泰山 慈母恩深如大海 父母存堂如日出 父母不在如日沒 父母在世是爲富 父母沒時實爲貧”

19) 강석주, 《새로 읽은 부모은중경》, 범공양 판, 1976, pp.3-4 參照.

20) 涵虛和尚, 《顯正論》, 《韓國佛敎全書》, 第七冊, p.218 參照.

부처님의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sup>20)</sup>고 했다.

그런가 하면, 儒敎에서는 “남편은 가정을 꾸리고 아내는 가사를 돌보면서 조상 대대의 가업을 잘 이어 나가고, 여러 제사를 잘 지내야만 孝道라고 하였다.” 그러나 佛敎에서는 “成道를 하려고 人倫을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後嗣를 품으니 이것이 不孝가 아닌가”<sup>21)</sup> 라는 의문을 제시해 준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佛敎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게 된다. 經權(經法과 權道 즉 經은 一定不變한 法則, 權은 臨機應變의 처리나 佛敎에서의 方便)은 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經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道理가 없어지고, 權이 없으면 무슨 일을 당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그러기에 經으로 人間의 道理를 지키게 하고 權으로 매사를 적절하게 한 뒤에야 도가 人間의 신조나 지배 精神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人間의 道理를 지키 줄 모르면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없고 일을 당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줄 모르면 큰 일을 이룩할 수가 없다.<sup>22)</sup>

經權이란 原理에 의해서, 人間은 성심 성의껏 국민이나 子息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結婚해서 家庭을 잘 꾸리고 제사를 잘 지내서 조상을 추모해야만 살아서는 평판이 좋고, 죽어서는 人間된 道理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서 평판이 좋은데 그칠 뿐 애욕을 끊는 사람은 드물고, 또한 죽어서 人間된 道理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뿐 輪廻를 면하기는 어렵다.”<sup>23)</sup> 다시 말해서 애욕을 끊지 못해서 煩惱와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경계에 이르거나 究竟의 이상세계 즉 解脫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輪廻를 벗어나고 싶으면 먼저 애욕을 끊고, 애욕을 끊고 싶으면 먼저 처자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싶으면 속세를 떠나야 한다.”<sup>24)</sup>라고 강조하고 있다.

《維摩經》에는 出家의 功德에 대한 說明을 듣고자 하는 라홀라에게 부처가 말하기를, “出가는 勿論 좋지만 形式的인 出家보다는 在家的 出家, 즉 내에 집착하지 않으며 因緣의 影響을 받지 않는 참다운 出가를 권하는 說法이 있다.”<sup>25)</sup> 이처럼 佛敎에서는 家庭 안에서의 人間의 愛情關係도 煩

21) 上揭書, 絶婚姻去人倫 長往山林 求絶後嗣 豈可謂不孝乎.

22) 上揭書, p.223 參照.

23) 金東華, 《佛敎倫理學》, 昌震社, 1977, pp.330-336 參照.

24) 上揭書, pp.338-349 參照.

25) 불교성전 편찬회, 《불교성전》, 동국역경원, 1972, pp.330-331 參照.

愼의 원리 중의 하나이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要因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成道를 하기 위해서는 人倫을 버리고 出家하여 불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보은이라고 할 것이다.

佛敎에서는 父母에게 孝道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어버이로부터 받은 恩惠가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恩惠에 보답하는 것으로, 그 恩惠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키우고 가르쳐 이 세상을 보게 해 주었으므로”<sup>26)</sup> 어버이에게 孝道하고 順從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孝는 세속에서 父母에게 孝養하는 것도 勿論 孝이지만, 그것은 父母에 대한 眞正하고 절대적이며 究竟的인 孝는 되지 못하므로 “佛法을 신봉하여 諸惡을 莫作하고 衆善을 봉양케 하며, 究竟에는 삶의 도리를 완수하여 難苦得樂·轉迷開悟해서 불타가 되게 되면”<sup>27)</sup> 진실한 보은이며, 釋迦牟尼佛처럼 成佛을 하게 되는 것으로, 모두가 父母의 恩惠이니 이 恩惠의 보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보답의 究竟의 道는 역시 無苦安穩의 경지, 인간 최고의 지위인 불타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父母生時 孝를 보면 儒敎의 孝思想은 〈未來〉의 문제보다는 〈現在〉를, 〈天道〉의 문제보다는 〈人道〉의 문제를, 〈死〉의 문제보다는 〈生〉의 문제를 더 重視하고 있다. 이와 같이 現在와 生時를 더 중요시한 儒敎의 孝思想은 死後보다는 生時에다 더 比重을 두어, 어버이 살아 계실 때의 효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佛敎의 경우는 《佛說父母恩難報經》에서, “父母가 子息에게 큰 增益을 주었나니, 젓 먹여 길러 주시고 수시로 보살피 四大가 이루어졌으니 父母를 천년이 지나도록 孝行한다 하여도 그 恩惠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子息은 父母에게 孝道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첩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멀리하여 성글게 하지 말며, 女情에 욕심이 많고 색을 좋아하면 孝道를 어기고, 어버이를 죽이며,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만민이 도망가리라<sup>28)</sup>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식은 예절 법식을 근엄히 하며, 인을 높이고 덕에 나아가 뜻을 적막한 데 두며, 학문을 밝게 통달하여 이름을 제천에 떨치며, 총명이 현인과 같으려 하였다가 스스로 처자에

26) 楊貞圭, 前揭書, 1981, p.210.

27) 金東華, 前揭書, pp.330-352 參照.

28) 《佛說孝子經》, 大正16, p.780.

게 더럽히고, 여색 미혹하여 황당하게 욕심을 흘리고, 요망하게 자택을 짐 먹히니, 그 변화는 만가지나 된다.<sup>29)</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佛敎의 경우 父母 生時의 孝思想은 死後보다 生時에 더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父母의 恩德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만큼 크고 넓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쳐 奉養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孝道의 本質은 知恩報恩思想을 本質로 하므로, 먼저 知恩은 無知의 깨우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세속에서 말하는 孝의 道로써 父母를 孝養하는 것도 勿論 孝이겠지만, 그것은 진정하고 절대적이며 究竟的인 孝는 되지 못하므로 佛法을 신봉하게 하여 諸惡을 莫作하고 衆善을 奉行케 하고 究竟에는 삶의 도리를 완수하여 難苦 得樂·轉迷開悟해서 불타가 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sup>30)</sup>

父母死後 孝를 보면 儒敎에서는 先祖 死後의 靈魂 부르기를 魂魄이라 하여 崇拜의 對象으로 하고 祭時에는 紙榜을 써 붙이고 祝文을 읽어 혼백을 불러 엄숙하게 奉祭한다.

佛敎에서도 父母死後 孝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佛說報恩奉盆經>에 보면, 六神通을 얻은 목건련의 孝行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父母를 제도하여 젓 먹여준 恩惠를 갚고자 즉시 道眼으로 세계를 觀察하니, 그 죽은 어머니는 아귀에 태어나 음식을 보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되어 있었다. 이를 본 목건련이 슬피 울며, 곧 바루에 밥을 담아 그 어머니에게 가서 먹이니 그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덩이로 변하여 끝내 먹지 못하였으므로, 목건련이 급히 돌아와서 슬픈 얼굴로 그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목건련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뻗어서 너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여러 스님네의 위신력으로써 解脫을 얻으리니.”내가 이제 구제하는 법을 말하여 일체의 어려운 이로 하여금 모두 근심과 고통을 여의게 하리라 하고 七月 十五日은 七世의 父母가 厄難 속에 있는 이를 위하여 국수와 밥과 다섯 가지 과일과 물기는 그릇과 香油와 촛불과 평상과 巨人具를 장만하여 衆僧에게 공양을 올릴 것이다. 이 날을 당하면 모

29) 上揭書, p.780.

30) 金東華, 前揭書, p.334.

든 성스러운 성현들이 산간에서 선정을 닦거나, 或은 네가지 道果를 얻거나, 或은 나무 밑에서 경행하거나, 或은 六통을 얻어 날아다니면서 聲聞·緣覺을 교화하거나, 或은 보살이 방편(權)으로 비구를 나타내어 대중 속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공양을 받느니라 고 하였다.

그리고 청정한 계와 성스러운 성현들이 도를 구족하였으므로 그 德이 넘쳐 흐르나니, 만일 어떤 이가 이러한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七世의 父母와 五종의 친척이 모두 三惡道를 벗어나서 곧 解脫하고 의식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땅히 시주집의 七世 父母를 위하여 선정에 안주하고 마음으로 안정한 연후에 이 공양을 받들지니라. 이에 목건련 비구와 모든 대중들이 환희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sup>31)</sup> 고 하였다.

《孟蘭盆經》에서도 《佛說報恩奉盆經》과 같은 내용, 즉 父母死後의 孝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의 經典에 의해서 볼 때 父母死後의 孝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佛敎歌辭에 나타난 孝思想

孝는 모든 德(孝·悌·忠·信·禮·義·廉·恥)의 근본으로서 道가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여러 종교가 모두 孝를 根本으로 삼아 존중하지만 佛敎가 더욱 그러하다.

孝는 대개 世孝·出世孝·事孝·理孝·行孝·化孝·單孝·廣孝 등 여덟 가지로 나누는데<sup>32)</sup> 本稿에서는 相對性을 지닌 孝思想을 世孝와 出世孝, 單孝와 廣孝로 구분하여 먼저 살펴 보고, 同質性을 지닌 孝思想을 事孝와 理孝, 行孝와 化孝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佛說報恩奉盆經》, 大正16, p.780.

32) 釋知性, 《地藏經의 孝思想》, 초롱, 1993, p.17.

# 1. 相對性的 孝

## (1) 世孝와 出世孝

### 1) 世孝

世孝라는 것은 《梵網經》에 의하면, 석가세존께서는 위없는 正覺을 이루어 보살 波羅提木叉를 맺어 부모님과 스승, 三寶와 효순의 지극한 도에 효순하시어 효를 戒라 하여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계를 지키는 것이 효를 행하는 바임을 알 수 있다. 즉 효와 계는 이름은 다르나 실체는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三學의 행이 모두 효인 것이다.

孝가 戒學의 시초이니 孝가 없으면 戒 또한 없는 것이다. 스스로만 戒를 지녀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불효이고, 남에게는 戒를 지키게 하면서 스스로는 행하지 않는 것은 不順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효순을 지녀 스스로가 삼보에 길들여져 배워 익혀야 할 일이다. 이것이 크나큰 功이고 도를 구하는 법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속히 위없는 보리의 도를 성취토록 하는 것이다. 즉 오직 효순함을 배움으로써만 성취하는 것이다.

- |               |                |
|---------------|----------------|
| 6 부모동심 善知識에   | 7 驕慢하고 猜嫌하면    |
| 8 黑繩獄의 忒러져서   | 9 불나을의  굽디지며   |
| 10 百年톱을  켜웁는듯 | 11 熱炎獄의  고생이오  |
| 12 큰法을  일을삼아  | 13  여러因을  어즈레면 |
| 14 極烈獄의  몸살미를 | 15  굿팀업시  고통하고 |
| 33 부모님과 功德人을  | 34 毀謗하며 背恩하면   |
| 35 無間獄의 忒러져서  | 36 一身皮骨  존마오미  |
- 〈奠說因果曲〉(地獄道頌)

父母兄弟나 善知識 즉 男女, 老少, 貴賤을 가리지 않고, 모두 佛緣을 맺게 하는 이에게 교만하고 시기하고 의심하면 혹승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많이 사람을 瞋망하며 背恩하면 無間獄에 떨어진다.

《父母恩重經》은 子息된 道理로서 父母의 恩惠와 報答을 깨닫게 하는 經典인데, 父母의 恩惠를 다음 열 가지로 나누어서 說明하고 있다.

첫째,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주는 恩惠 (懷耽守護恩)요, 둘째, 解産날에 즈음해서 苦痛을 이기시는 어머니 恩惠 (臨産受苦恩)요, 셋째, 子息을 낳아서 근심을 잊는 恩惠 (生子忘憂恩)요,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빨아 먹이는 恩惠 (咽苦吐甘恩)요, 다섯째,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닦이는 恩惠 (廻乾就濕恩)요, 여섯째, 젖을 먹여 기르시는 恩惠 (乳哺養育恩)요, 일곱째, 손발이 닳도록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恩惠 (洗濯不淨恩)요, 여덟째,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恩惠 (遠行憶念恩)요, 아홉째, 子息의 將來를 위하여 苦生을 참으시는 恩惠 (爲造惡業恩)요, 열째,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恩惠 (究竟憐愍恩)다.

이렇듯 父母의 恩惠를 기리는 內容의 《父母恩重經》은 儒敎에서의 父母의 孝道를 強調한 《孝經》과 비슷하나 여기에는 몇 가지 特徵이 있다.

첫째, 父母의 恩惠가 具體的이고, 둘째, 科學的으로 列擧되어 있으며, 셋째, 《孝經》이 父母 가운데서 아버지를 두드러지게 表出한 것에 반해 《父母恩重經》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恩惠를 더 強調했으며, 넷째, 《孝經》이 孝道를 強調하는 데 반해서 《父母恩重經》은 어떤 것이 恩惠인가를 具體的으로 더 많이 說明한 뒤, 그러니까 恩惠를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方法을 提示하는 同時에 그렇게 實踐하지 않은 不道德하고 不孝한 子息은 죽어서 地獄에 떨어져 무서운 刑罰을 받게 된다는 보다 積極的 報恩을 強調하고 있다.<sup>33)</sup>

《觀無量壽經》4권 '孝養父母' 에 "만약 아버지가 안 계시면 能生의 因이 부족한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시면 所生의 緣을 거역하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안 계시면 말겨 태어날 곳을 잃어 몸을 이어받을 도리가 없다. 이미 몸을 받고자 할 때는 자신의 業識을 內因으로 삼고 부모의 精血을 外緣으로 한다. 인연이 화합하므로 몸이 되고 이런 이유로 부모의 은혜는 중하다."고 하며 자기를 생기게 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더욱이 선도는 "부모는 세간 복전의 최고이고 부처님은 출세간 복전의 최상이다."라고 말하며, 부모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보다도 중하다고 서술한다.

33) 李民樹 譯, 《父母恩重經》, 乙酉文化社, 1977, pp.4-6.

父母의 恩惠를 背恩하면 無間獄에 떨어지는 原因이 되는 五逆의 罪는 小乘의 五逆과 大乘의 五逆으로 나누는데 小乘의 五逆은 殺父·殺母·殺阿羅漢·破和合僧·出佛身血이다. 大乘의 五逆은 塔寺破壞, 經像燒却, 三寶竊盜·三乘法 誹訪, 聖教를 輕賤하게 여김·僧侶를 辱하고 부림·小乘의 五逆罪를 犯함·因果의 道理를 不信하고 惡口·邪淫 등의 十不善業<sup>34)</sup>을 짓는 것을 말한다.

남염부제의 罪報 중 첫째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 억 겁을 나올 기약이 없다고 했다.

- |              |                              |
|--------------|------------------------------|
| 44 부모事長 尊親前의 | 45 卞라는일 어기오면                 |
| 46 藥叉鬼中 셔러져서 | 47 毒行行實 더욱호야                 |
| 48 깊픈苦楚 難當이라 | 50 智慧丈夫 솔피소<br>〈冥說因果曲〉(餓鬼道頌) |

父母事長이 바라는 일을 어기면 藥叉<sup>35)</sup>餓鬼道에 떨어져서 苦痛을 받게 된다. 불교에서는 자기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부모였던 사람이라고 설한다. 이것은 삼세에 걸친 六道輪廻思想에서 온 것이다. 《梵網經》에 나와 있는 “모든 남자는 모두 우리 아버지, 모든 여자는 모두 우리 어머니”란 말은 육도윤회사상에서 나온 사교이며 모든 사람들을 부모와 같이 경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孝는 善에서 나온다고 한다. 사람에게는 모두 善心이 있다. 불도를 가지고 이것을 넓히지 않으면 선행도 커지지 않고 효도 또한 적다. 불교의 도는 남의 부모 보기를 자기의 부모와 같게 한다. 남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자기의 생명과 같게 한다. 때문에 불교의 선을 행하면 선이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미치고 효를 행하면 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효가 미친다.

- |              |              |
|--------------|--------------|
| 35 修善作福 忠孝君子 | 36 스후턴당 落相이오 |
| 37 不忠不孝 作惡者는 | 38 스후삼도 苦相이라 |
| 39 苦와樂이 분명호던 | 40 불신인과 頑惡人은 |

34) 身三：殺生·偷盜·邪淫, 口四：妄語·綺語·兩舌·惡口, 意三：貪欲·瞋恚·邪見

35) Yaksa 8部衆의 하나로 夜叉·闍叉라 음역, 威德·暴惡·勇健·貴人·捷疾鬼·祠祭鬼라 번역 나팔과 함께 비사문천왕의 권속으로 북방을 수호함.

41 我慢貪心 밤이되야      42 忠孝信行 바히업고  
 〈奠說因果曲〉 (序曲)

삼라만상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으뜸이니, 중생은 착한 일 즉 十善을 행하면서 자연적으로 福을 짓는 忠孝君子는 죽으면 반드시 極樂으로 들림 없이 간다고 했다. 만약 不忠不孝하고 十惡<sup>36)</sup>을 행하는 衆生은 죽은 후에는 三途<sup>37)</sup>인 地獄·餓鬼·畜生에 떨어져서 무수한 苦痛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를 믿으며 스스로 높은 양하는 我慢과 자기의 뜻에 맞는 사물에 대하여 마음으로 애착케 하는 정신 작용인 貪心을 버리고 忠孝를 十信<sup>38)</sup>으로 해야 한다.

《孝經》 제11 五刑章에 “五刑에 해당하는 삼천 가지의 어떠한 죄도 불효보다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형벌 중에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는 것이다.

불효 행위는 《唐律疏義》라는 당대 법률서에 규정되어 있다. 즉 조부모·부모를 고소하는 것, 조부모·부모를 욕하는 것, 조부모·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자손·형제·동기간에 따로 나가 사는 것, 조부모·부모를 충분히 공양하지 않는 것, 부모의 상중에 결혼하는 것, 부모의 상중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 부모의 상중에 상복을 입지 않는 것, 조부모·부모의 상을 감추는 것, 조부모·부모의 상을 거짓 칭하는 것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면 불효로서 형에 처해졌다.

《雜寶藏經》에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다 自身이 죽는 것이 있다. 계송을 보면, 대개 사람은 높은 이에게 부디 나쁜 생각 내지 말지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해치려다가 도리어 제 몸 태워 죽는 것 같으리라 하였다. 또 《雜寶藏經》을 보면 역시 불효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다 도리어 男便을 죽인 因緣<sup>39)</sup>이 나온다.

만일에 父母가 믿음이 없으면 믿어 安穩處를 얻게 하고, 戒가 없으면 계를 주고 교수하여 安穩處를 얻게 하며, 들은 것이 없으면 듣게 하고, 간담

36) ①殺生 ②偷盜 ③邪淫 ④妄語 ⑤兩舌 ⑥惡口 ⑦綺語 ⑧貪慾 ⑨瞋恚 ⑩邪見

37) ①火塗 ②刀塗 ③血塗

38) ①信心 ②念心 ③精進心 ④慧心 ⑤定心 ⑥不退心 ⑦護法心 ⑧迴向心 ⑨戒心 ⑩願心

39) 《雜寶藏經》, 大正4, 不孝婦欲害其姑反殺其夫緣.

이 있으면 보시를 좋아하도록 가르쳐서 즐거움을 권하고, 智慧가 없으면 智慧를 밝히게 하고 권하고 이 모두 교수하여 安穩處를 얻게 하여야<sup>40)</sup>이 또한 孝行이라 할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다섯 가지 형벌에 삼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죄로서는 不孝보다 큰 것이 없다. 하물며 항차 사후의 죄고를 말해 무엇하겠느냐' 고 했다.

## 2) 出世孝

出世란 世俗을 버리고 佛道修行에 들어가든지 俗世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 즉 煩惱에 얽매인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聖者의 생활에 들어감을 말한다.

출세간의 효는 "그 부모에게 권하여 齋戒하고, 도를 받들고, 일심으로 염불하여 왕생을 빌고, 육도의 미계를 벗어나게 하여 미타의 정도에 왕생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큰 효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효이고 출가의 효이며, 세간의 효에 대해 대효라 일컬어지는 까닭이다. 이것이 명대의 출가 대효론이다.

1 勸 <sup>호</sup> 노니	권 <sup>호</sup> 노니	2 修道선증	勸 <sup>호</sup> 노니
3 十三十五	이십세에	4 出家入山	위승 <sup>호</sup> 야
5 무슴 <sup>모</sup> 옴	세우신고	6 忠臣孝行	호자 <sup>호</sup> 가
7 修身成道	호자 <sup>호</sup> 가	8 名利立身	호자 <sup>호</sup> 가
9 身勢貧富	고로자녀	10 依托 <sup>호</sup> 려	출가 <sup>호</sup> 가
30 出家中の	다시출가	31 眞實 <sup>노</sup>	거룩 <sup>호</sup> 니
32 忠孝코져	아니 <sup>호</sup> 되	33 自然 <sup>이</sup>	忠孝되며

〈勸禪曲〉(序曲)

入山爲僧하여 世事食着은 그만 두고 무슨 誓願을 세웠는가. 忠臣孝行·修心成道·名利立身·身勢貧富 중 무엇을 依托하려고 出家했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출가하면 忠孝코자 아니해도 자연히 忠孝되고, 修心코자 아니해

40) 上揭書.

도 자연히 修心되고, 立身코자 아니해도 자연히 立身하니 忠孝하여 修心하고 修心가져 成道하고 成道가져 利他하라고 권하였다.

명나라 주굉의 《竹窓隨筆》제3필의 ‘출세간 대표’에서는 “세간의 효는 세 가지, 출세간의 효는 한 가지이다. 세간의 세 가지 효라는 것은 공양하는 것, 관리가 되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덕을 쌓아 성인·현인이 되어 부모의 이름을 떨치는 것 등 세 가지이다.”라고 한다.

불교의 효는 둘러싸고 덮는 것이 원대한 바, 생각건대 려는 마음에 달려 있을 뿐 머리카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만일 머리카락을 사랑하여 마음을 버린다면 어찌 효를 취하리.”라 하여 효는 마음의 문제이고 머리카락 따위에는 관계치 않는다.

《孝經》에는 “신체발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므로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입신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김으로써 부모를 널리 알리는 것은 효의 끝이다.”라 했다. 출가의 효는 효의 마지막이라고 주장했다. 출가의 효는 도를 쌓아 법에 의한 자비심으로써 모든 것을 구한다. 게다가 눈앞의 효가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효로 일시적으로 짐을 버리는 것은 불효에 가깝지만 마지막에는 부모를 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송대에는 출가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고, 부모를 육도의 윤회에서 구제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며 대표라고 주장했다.

## (2) 單孝와 廣孝

### 1) 單 孝

單孝라는 것은 저 혼자만 생각하고 남을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현재만을 보고 장래를 살피 행하지 못함이 삼년 동안 고쳐지지 않으면 단효이다. 아버이를 잃어 장사를 지낸 후 무덤 가까이에 움막을 지어 기거함은 참으로 순수한 효자로서, 능히 금수도 감동케 하는 행이기는 하나 獨孝이다. 혹은 아버이의 뜻을 받들어 등에 업고 다니는 일도 있으나 이는 아버이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돈독하기는 하지만 또한 단효에 속한다.

207 시부시모	친부모이	208 지성효도	하얏난야
209 형제간이	우이하며	210 친척화목	호여는야

211 怪惡하고	간특한년	212 부모말삼	拒逆하고
213 同墻間이	離間하고	214 형제불화	하게하며
215 世上奸惡	다부리며	216 世上奸惡	다부리며
217 열두시로	마음변화	218 안듯는디	욕을하고
219 마조안자	우슴樂談	220 남의말을	일삼는년
221 猜忌하기	조와한년	222 풍도옥에	가두리라

〈善心歌〉

父母에게 至誠으로 孝道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자는 시부모에게도 지극한 孝道를 해야 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일가 친척 친지간에 和睦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형제간이나 동서간을 이간하며 남의 말을 일삼는 여자는 풍도옥에 간다고 했다.

옛날 楚國의 老萊子は 늙은 양친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하여 칠십의 나이에 도 색동옷 같은 아이 옷을 입고 그 슬하에 누워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렸다고 한다.

부처님은 “범인 백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착한 사람 천명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五戒를 지닌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만명의 五戒를 지닌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스로오타아판나를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백만명의 스로오타아판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사크리다가가민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천만명의 사크리다가가민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아나아가가민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일억의 아나아가가민을 공양하는 것은 한명의 阿羅漢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十억의 阿羅漢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백억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三존의 가르침으로써 그 한 세상의 두 아버이를 제도하는 것보다 못하고, 천억 명을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의 교학으로 부처가 되기를 바라며 중생을 제도하려는 이 한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니,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복이 가장 깊고 소중하며, 무릇 인간이 천지의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孝道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니 두 아버이가 가장 신령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92 忠信孝行 모로거든

93 착훈사름 헤아릴까

94	나도저만	저도저만	95	누구여든	제종일가
96	눅픈눔도	업서뵈고	97	무셔온눔	可笑롭다
98	수근辱의	비견말로	99	口業惡談	놀나올샤
100	이 몸을	일흔後에	101	다시人身	難得이라

〈箕說因果曲〉 (序曲)

忠孝를 實行하지 못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라에는 忠信을, 父母에게는 孝行을 至極精誠으로 해야 한다. 父母가 끼치신 몸을 삼가고 조심하여 保全해야 한다. 口業惡談으로 地獄道에 떨어지면 人道 還生하기가 어렵다. 日常生活에 있어 父母의 恩惠를 잊지 말고 늘 言行을 조심하여, 自己 自身과 父母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즉 父母로부터 받은 肉體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남을 헐뜯거나 비웃으며, 분함을 참지 못하고 남과 싸우며, 酒色雜技에 빠져 自身과 父母를 욕되게 하고 父母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孝道이다. 衆生은 행위·언어·情意로 범하는 惡行業인 三惡行<sup>41)</sup>으로 三惡道<sup>42)</sup>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대개 사람이 세 가지 나쁜 길을 떠나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이미 사람이 되었어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 되기가 어려우며, 이미 남자가 되었어도 六根을 완전히 갖추기가 어렵고, 六根을 이미 갖추었어도 中國에 태어나기가 어려우며, 이미 中國에 살아도 불도를 만나서 받들기가 어려우며, 이미 불도를 받들어도 올바른 도가 있는 임금을 만나기가 어려우니라.”<sup>43)</sup> 라고 말씀하셨다.

## 2) 廣 孝

廣孝는 世生生 일체 중생에게 두루 효행하는 것으로, 그들 모두가 나의 부모라고 생각함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과거에 서로 부모였다.”고 하셨다.

유교에서는 효를 백가지 행의 근본이라 하나 불교에서는 우주 시공 삼라만상이 불법 아님이 없음과 우리들 인간을 포함한 중생들이 다생부모와 자손·형제·자매라고 하는 인연법을 말한다. 따라서 불교에서의 孝도 부

41) ① 身惡行 ② 口惡行 ③ 意惡行

42) ① 地獄 ② 餓鬼 ③ 畜生

43) 《四十二章經》, 大正17, p.722.

모와 자식간의 因緣에 의한 행위의 크나큰 가치로 인정한다.

모든 남자가 나의 아버지고, 모든 여인이 나의 어머니인지라, 나의 生生이 거기 따라 생을 받지 않음이 없기에 육도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인 것이다. 능히 살생치 않고 방생을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광효이다.

- |         |      |         |      |         |
|---------|------|---------|------|---------|
| 37 저무삼  | 모양일고 | 38 寒心   | 호고   | 39 섭사올사 |
| 39 나라忠臣 | 되다홀가 | 40 父母孝養 | 되다홀가 |         |
| 41 친쳐권속 | 生光돌가 | 42 貧病乞人 | 구제롤가 |         |
| 43 貧病乞客 | 보치오면 | 44 勢不得已 | 주엇느니 |         |
| 45 善心노라 | 주오시며 | 46 慈悲布施 | 주오신가 |         |
- 〈勸禪曲〉(名利勸曲)

출가한 屬親에게 하직하고 입산하여, 불제자에게 의탁하여 上報四恩과 下濟三道を 다짐하는 것이라 말하고, 출가승으로서 용심할 일들을 열거하였는데, 첫째 나라에 忠臣, 父母에게 孝養을 말하고 그 뒤에 貧病乞人을 구제하고 善心으로 慈悲布施하라고 권하였다. 즉 중생에게 낙을 주고 고틀 없애 주는 慈悲心으로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布施<sup>44)</sup>를 하라고 권하였다.

원나라 普度の 《蓮宗寶鑑》권1《觀無量壽經》의 ‘효양부모’에서 염불은 제법의 요체이고 효양은 백행의 우선이다. 효심은 즉 불심이고 효행은 佛行이 아닌 것이 없다. 득도하여 제불과 동등하고자 한다면 우선 양친에게 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로 중색 선사는 “효, 이 한 자는 衆妙의 문”이 된다고 말했다. 佛語는 효를 宗으로 삼고 佛經은 효를 戒로 삼는다.

“효심은 불심이고 효행은 불행”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觀無量壽經》의 왕생의 업인으로 효를 설명하는 것이다. 효심은 불심이고 효행은 불행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梵網經》에서는 효순심과 자비심을 하나로 하여 효순심은 자비심이고 그것은 즉 불심이라고 시사했을 것이다.

- |         |      |         |      |
|---------|------|---------|------|
| 31 歲月노  | 漸漸호고 | 32 어린조식 | 자령조식 |
| 33 비끓파라 | 우지진돌 | 34 옷달닐것 | 전혀업고 |
| 35 나의心臟 | 말으논듯 | 36 이럿트시 | 섭스올츠 |

44) 財施·法施·無畏施.

37 나라忠臣	되야시며	38 父母孝養	하야실가
39 父母祖上	제스날이	40 오고간들	싱각할가
41 싱각나니	설운心思	42 바라나니	언제살고
〈勸禪曲〉 (貧人勸曲)			

이것은 빈궁한 이들에게 말하기를, 전생에는 財物衣食이 넉넉했으나 교만하고 선심이 부족하여 三惡道에 고생하다가 다행히 人道還生 되었으나 빈천하게 태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금생에는 비록 빈천하여 조상 제사를 잘 지내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忠臣되고 父母에게 孝行하면 내세에 가서 존귀하게 된다고 권면한 노래이다.

법림은 산야에 매장하는 것은 많은 새에게 시신을 보시하고 괴로웠던 과거세의 빚을 갚기 위함이기도 하고, 유교에서처럼 훌륭한 棺을 쓰지 않는 것은 천지로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또 화장도 풍장도 혹은 탐묘의 예도 모두 그 마음은 똑같은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일체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했다.

父母의 恩惠에 보답하는 方法에서 구체적으로 報恩에 대한 여덟 가지 가 르침을,

- ① 父母를 업고 먼 길을 걸어 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骨髓까지 나오는 苦痛,
- ② 酷毒한 餓饑를 만나 自己 몸의 살을 저며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父母에게 바치는 苦痛,
- ③ 잘 드는 날카로운 칼로 眼睛을 도려 내어 아래에게 바치는 苦痛,
- ④ 自己 心臟과 肝臟을 쪼개내어 피가 흘러 땅에 가득한 苦痛,
- ⑤ 無數한 칼날로 自己 몸을 左右로 찢는 苦痛,
- ⑥ 自己 몸에 못을 박고 거기에 燈臺을 걸어 如來에게 供養드리는 苦痛,
- ⑦ 뼈를 썩서 骨髓까지 나오고 또 수 많은 창 끝으로 一時에 自己 몸을 찌르는 苦痛,
- ⑧ 불에 달군 무쇠 彈丸을 삼켜 自己 몸이 불타 오르는 苦痛을 받을지라도 어느 것이나 父母의 크고 깊은 恩惠를 다 갚게 되는 일은 되지 못한다고 比喻하였다.<sup>45)</sup>

45) 李民樹 譯, 前掲書, 1977, pp.124-158.

## 2. 同質性的 孝

### (1) 事孝와 理孝

#### 1) 事孝

사효라는 것은 살아 있는 몸에 관한 것으로 나를 낳으신 분이 부모님이 고 나를 키우신 분도 부모님이라, 천하에 유위함이 살아 있는 몸 이상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몸을 낳으신 근본이므로 험벗고 굶주릴지라도 그 큰 은혜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 |                 |          |      |
|-----------------|----------|------|
| (가) 1 세상천지 만물중의 | 2 사람बाट기 | 또잇난가 |
| 5 이世上이 나온사람     | 6 뉘德으로   | 나완는가 |
| 8 아부님전 씨를빌고     | 9 어무님前   | 살을빌어 |
| 10 七星님전 命을빌고    | 11 帝釋님전  | 福을빌어 |
| 12 이세상의 誕生하나    | 13 한두살에  | 철을몰나 |
| 14 父母恩德 어이알가    | 15 이삼십을  | 당하여도 |
| 16 父母恩功 못다감하    | 17 어이업고  | 이달고나 |
- 〈善心歌〉

- |                 |          |      |
|-----------------|----------|------|
| (나) 8 阿父님전 뼈를빌고 | 9 於母님전   | 살을빌며 |
| 10 七星님전 命을빌고    | 11 帝釋님전  | 福을빌어 |
| 12 이내一身 誕生하니    | 13 한두살에  | 철을몰라 |
| 14 父母恩德 아올소가    | 15 二,三十을 | 당하여도 |
| 16 父母恩功 못다감하    | 17 어이업고  | 애달고나 |
- 〈別回心曲〉

(가)〈善心歌〉는 세상천지 만물 중에 四生(胎生·卵生·濕生·化生)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還生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父母님의 恩德으로 人道에 왔으니 아버지의 恩惠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昊天罔極이라고 했다.

(나)〈別回心曲〉은 樹欲靜而하나 風不止하니, 子息이 철이 들어 孝를 할 만하면 이미 父母는 떠나가게 된다. 父母가 늙으면 妄靈이 들어 애답게 됨

을 어찌할 수 없으니 人生의 無常함과 死後의 因果應報의 法에 따라 審判 받게 됨을 믿고 착실히 心身을 닦으라고 勸勉하고 있다.

안세고가 번역한 《六方禮經》에서 자식의 효를 살펴보면, 우선 동쪽을 향해 예배하는 것은 자식된 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일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생업을 잘 다스리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맡는 이에게 식사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부모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넷째, 언제나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부모가 만약 병이 났을 때에는 즉각 의사를 부르고 이를 간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교의 효는 부모도 또한 자식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첫째, 아이에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지니게 한다. 둘째, 아이에게 학문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주 세간의 도덕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넷째, 어릴 때 결혼시켜야 한다. 다섯째, 적당할 때 집안을 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도는 “부모는 세간 복전의 최고이고 부처님은 출세간 복전의 최상이다.”라고 말하며, 부모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보다도 중하다고 서술한다.

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도 불리는 《法苑珠林》에서는 많은 경론을 들어 부모양육의 은혜와 보답하기 어려운 광대하고 깊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그 경론들은 《末羅王經》·《증일아함경》·《지옥경》·《살바다론》·《敬師經》·《육도집경》·《사십이장경》·《잡보장경》·《보은경》·《섬자경》 등이다. 그중에서도 항상 나오는, “아버지를 왼쪽 어깨 위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 위에 업고 천만년 동안 부모에게 의복·음식·상좌·와구·의약을 공양해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증일아함경》에 있다. 《사십이장경》에서는 “천지의 귀신을 섬기기보다 그 양친에게 효하는 쪽이 공덕이 크다. 양친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고 있다.

《父母恩重經》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혼인한 까닭이며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아니면 양육될 수 없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끝없는 하늘과 같이 크고 한이 없는 것이다. 은혜(恩)란 글자를 생각해 보면, 恩惠·恩令·恩威·恩澤·恩典·恩賜·恩給·恩賞·恩顧·君恩·國恩 등을 의미하고 위에서 아래로의 신분적 관계의 恩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 자식이 효를 다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며 인

륜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2) 理孝

理孝라는 것은 마음을 밝혀 덕을 닦아 도에 이르는 효를 말한다. 《禮記》에 이르기를 “작은 효는 힘으로써 하고, 조금 큰 효는 노고로써 하고, 크나 큰 효는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기르는 것만으로는 은혜를 갚는데 부족하다. 성현이 되어 덕으로 갚아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래서 성현은 道로서 大孝에 이르게 된다. 덕이란 어짐과 용서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道는 마음을 밝혀 神의 경지에 이름을 말한다.

事孝는 드러나기 쉬우나 理孝는 드러나기 어려운 것이니, 드러나는 것은 효의 행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효의 이치이다. 이치에서 효가 나오는 것이지 행이란 것은 단지 효의 모양새일 뿐이다.

183 父母님께	孝道하여	184 家範을	세웠시며
185 배꼽흔이	밥을주어	186 餓死救濟	하엿시며
187 헐벗은이	옷을주어	188 求難功德	하엿는가
189 조헌곳익	집을지어	190 行人功德	하엿는가
191 김흔물에	다리노아	192 越川功德	하엿는가
193 목마른이	물을주어	194 汲水功德	하엿는가
195 병든사람	약을주어	196 活人功德	하엿는가
199 조흔밭애	원두심어	200 行人解渴	하엿는가
204 어진사람	謀害하야	205 不義行事	만이하며
206 貪財함이	극심하니	209 너이죄를	엇지하리
208 罪惡이	甚重하니	209 풍도옥에	가두어라

〈別回心曲〉

이것은 인간이 죽어서 저승에 가 閻羅大王<sup>46)</sup>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을 말하고, 惡人은 地獄으로 가며 善人은 極樂으로 가는 과정을 상술한 다음, 조선사업을 많이 하여 來生 길을 잘 닦으라고 권유한 노래이다.

46) 閻羅國의 王으로 地獄에 살며 十八將軍과 八萬獄卒을 거느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의 생전의 善惡을 다스려 악을 방지하는 대왕.

부모님께 孝道하여 家範을 세운 후에 〈餓死救濟〉·〈救難功德〉·〈行人功德〉·〈越川功德〉·〈汲水功德〉·〈活人功德〉·〈行人解渴〉을 하라고 하였다. 만약 不義行事와 貪財하면 풍도옥에 간다고 했다.

자비의 마음은 공덕의 근본이며 안으로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없이 여겨서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같이하는 것이며, 밖으로는 좋은 얼굴이 나타나는데 조금도 인색할 뜻이 없어야 한다.

남의 고통을 아는 것이 자비의 복전인데, 첫째는 가벼이 욱하지 않아야 복을 얻고, 둘째는 베풀려고 하므로 복을 얻게 되고, 셋째는 자비심을 일으켜 애닦아 하고 다시 위로를 더하게 되면 얻는 복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5 一邊으로	念佛호고	46 일변으로	忠孝호소
47 九天이	感應호면	48 堯舜太平	아니불가
49 佛法어디	一定호며	50 堯舜어디	시이실고
51 念佛호면	佛法이요	52 忠孝호면	堯舜이니
53 忠孝가져	立身호고	54 念佛가져	安養가세 〈回心曲〉

이것은 말세적인 풍속에 물들어 忠孝信行을 다 버리고, 愛慾網에 걸려 골육상쟁으로 멸망하지 말고, 자기의 本心을 바로 가져 항상 不離眞性으로 修行得道하여 極樂蓮花臺에 올라 태평곡을 부르자는 것이다.

마음에 邪淫이 일어나면 念佛을 하여 八邪<sup>47)</sup>를 항복시키고 나라에 忠誠하고 부모님께 孝誠하면 九天<sup>48)</sup> 감홍하여 太平歲月이 온다고 했다. 衆生들은 부디 忠孝하여 사회에 나아가서 지위를 확고하게 세워 출세하고 염불하여 極樂 가자고 노래했다.

元曉大師는 忠孝의 마음을 “一心無二 즉 淸淨無垢”라 하였고 一心의 根源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歸一心源이 人生的 窮極目標라고 하였다. 人間은 本質的으로 永遠한 生命을 나뉘가진 同根同體이므로 “一心眞心”의 根源에 있어서 남이 아니다. 그러나 人間은 그 根本을 모르고 그 個體의 獨立完結性을 믿기 때문에 갈등과 角逐·對立과 鬭爭을 正當한 것으로 錯覺하고

47) 邪見·邪思惟·邪語·邪業·邪命·邪精進·邪念·邪定

48) 日天·月天·水那天·金星天·火星天·木星天·土那天·恒星天·宗動天의 총칭.

있다. 인간은 다만 因과 緣을 따라 남의 子女가 되고 父母가 되고 師長이 되고 一國의 指導者가 된다<sup>49)</sup>고 하였다.

- |              |              |
|--------------|--------------|
| 74 慈悲하심 布施호고 | 75 저런報應 면호시소 |
| 76 勸호노니 富貴君子 | 77 忠君孝父 호오시며 |
| 78 布施積德 선심호고 | 79 가난身命 붉게하며 |
| 80 잇는子孫 복을주고 | 81 텃당佛刹 任意왕리 |
- 〈勸禪曲〉(在家勸曲)

이것은 在家君子들에게 권하기를 前生福德을 심은 대로 今生報應을 받는 것임을 말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중에도 彌陀大經에 발원하여 來生極樂할 것을 권하면서, 예로부터 있었던 因果應報<sup>50)</sup>의 사례를 열거하여, 모름지기 五欲<sup>51)</sup>에 집착하지 말고 忠臣孝父하고 布施積德하라고 노래하였다.

布施(Dana)는 六道의 우두머리이고 모든 덕행에서 제일 처음이다. 모든 중생을 도탈하게 하는데 근본이며 성불을 도와 주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에는 대소가 있고 행동에는 頓漸이 있다. 보시에는 재시와 범시와 무외시가 있는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財施는 남에게 財物을 베푸는 것으로 천복을 얻게 되며, 法施는 법을 설하여 남을 도탈하게 하는 것인데 깊고 얕음이 있으며, 無畏施는 무외한 것을 사람에게 베풀어 사람들의 재난을 구해 주는 것이다.

## (2) 行孝와 化孝

### 1) 行 孝

行孝라는 것은 행효하는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덕을 참구하면 해와 달도 함께 빛을 발하여 만물을 化育한다. 이는 三才가 하나가 됨을 말함이니 어진 임금이 있으면 나라의 기틀이 공고하게 되어 王道의 風化가 세상에 떨

49) 大韓教育文化研究所 編, 《現代人의 忠孝思想》, 1977, pp.69-72.

50) 착한 因에는 착한 果, 악한 因에 악한 果가 상응하게 나타나 착오가 없음을 말함.

51) ① 財欲 ② 色欲 ③ 食欲 ④ 名譽欲 ⑤ 睡眠欲

쳐 크게 성하게 된다.<sup>52)</sup>

孟宗이 뜻하니 죽순이 솟아나고, 王祥이 얼음 위에서 잉어를 얻는 등, 한결 같이 효행으로 봉양하니 그 성심에 하늘이 감동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 |         |      |         |      |
|---------|------|---------|------|
| 24 忠孝信心 | 지극하면 | 25 富貴端正 | 거룩하고 |
| 26 禽獸畜生 | 스랑하면 | 27 佛乘善人 | 공경하여 |
| 28 갓초갓초 | 善行하면 | 29 즐거운몸 | 되어나서 |
| 30 出入去來 | 威儀보소 | 31 鳳輦花蓋 | 목마승거 |
| 32 가다가디 | 樂境이오 | 33 우물파며 | 나무심거 |
- 〈莫說因果曲〉 (人道頌)

忠孝하는 信心이 지극하면 富貴도 누릴 수 있고, 금수축생들도 사랑하고 十善道 또는 十善戒라고도 하는 몸(動作)·입(言語)·뜻(意念)으로 十惡을 범치 않는 十善<sup>53)</sup>을 행하는 사람을 공경하면 煩惱와 病患 그리고 慢心이 없는 樂境에서 人道에서 살 수 있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부모에게 敬順해야 한다. 첫째는 부모를 받들어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사뢰는 것이다. 셋째는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부모의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sup>54)</sup>

《原敎》에서는 먼저 五戒十善을 자세히 설명하고, 유교와의 일치를 서술하여 “오계를 유학에 비교하면 그 말하는 바는 五常仁義와 이름을 달리하나 그 본체는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나아가 十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不殺生은 반드시 仁이고, 不偷盜는 반드시 청렴함(廉)이다. 不邪淫은 반드시 正이고, 不妄語는 반드시 믿이며, 불음주는 반드시 不亂이다. 不綺語는 곧 誠이며, 不兩舌은 비방하지 않음이다. 不惡口은 욕하지 않음이고

52) 釋知性, 前掲書, p.23.

53) ① 不殺生 ② 不偷盜 ③ 不邪淫 ④ 不忘語 ⑤ 不兩舌 ⑥ 不惡口 ⑦ 不綺語  
⑧ 不貪慾 ⑨ 不瞋恚 ⑩ 不邪見

54) 《長阿含經》, 大正1, p.71. 下, 卷 第十一. “一者供奉能使無乏 二者凡有所先白父母 三者父母所爲恭順不逆 四者父母正令不敢違背 五者不斷父母所爲正業.”

不瞋悲는 해를 주지 않음이며, 不嫉은 다투지 않음이다. 不癡는 어둡지 않음이다.”

《孝論》 제7장 계효장에 다음의 구절이 있다.

“不殺生은 仁, 不偷盜는 義, 不邪淫은 禮, 不飲酒는 智, 不妄語는 信이다. 이 다섯을 행하면 즉 그 사람됨을 이루고, 그 부모의 이름을 드날리니 이 또한 효가 아닌가. 이 다섯은 그 하나라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 몸을 버리고 그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는 또한 불효가 아니겠는가.”

313 국왕부모	충효하며	314 빈병결인	보시하고
315 이극낙의	수심하라	316 나눈과거	본형시의
317 욕된일을	능히참고	318 지혜를	수습하며
319 공경하심	흐엿다가	320 일체사름	권화하여
321 넘볼시긴	공덕으로	322 이극낙의	슈심하라

〈往生曲〉

이 내용은 이 세상의 富貴榮華가 다 티끌과 같으며, 사람 또한 無常한 존재임을 깨달아 열심히 도를 닦아 아미타불의 공덕에 힘입어 西方淨土에 가라고 하면서, 이승에서 쌓을 덕목을 여러 가지로 노래하였다. 이 덕목 중 제일 먼저 國王에게 忠하고 父母에게 孝道한 후에 六波羅蜜<sup>55)</sup>의 실천으로 貧病乞人에게 布施하라고 모든 侮辱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말고 安往하는 忍辱, 샷된 지혜와 나쁜 소견을 버리고 참 지혜를 수습하여 극락왕생하라고 노래했다.

## 2) 化 孝

化孝라는 것은 효를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옛 제왕들은 백성들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효를 가르쳤다. 효를 몸소 지켜 博愛로 백성들을 깨우친 것이다.

군자의 근본 도리는 孝悌에 있어 모든 백성을 교화하여 서로를 친애하게 하는 효보다 나은 것이 없다.

불경에 나오는 化孝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행하는 것이다.

55) 涅槃의 彼岸에 이르기 위한 菩薩의 여섯 가지 수행.

① 布施 ② 持戒 ③ 忍辱 ④ 精進 ⑤ 禪定 ⑥ 智慧

- |          |      |          |      |
|----------|------|----------|------|
| 186 어린마음 | 驕慢하야 | 187 따의누어 | 誦經듯고 |
| 188 地獄道の | 들엇다가 | 189 多幸이  | 세상나나 |
| 190 人頭蛇身 | 되야나고 | 191 죄맛춘후 | 사름되나 |
| 192 곳치옴기 | 어려온病 | 193 恒常몸의 | 업막이니 |
| 194 孝養업슨 | 慢心으로 | 195 父母事長 | 업쉬너여 |
| 196 제子息도 | 업히이며 | 197 惡性으로 | 佛供하면 |

〈奠說因果曲〉(天道頌)

天道에 태어나도 마음이 驕慢하여 누워서 佛經을 들으면 地獄에 떨어졌다가 人道에 온다 할지라도 불구자가 된다. 만약 부모를 孝行으로써 奉養하지 않고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자랑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父母를 恭養하지 않으면 제 자식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오대의 고승인 智覺禪師 延壽는 《萬善同歸集》권5에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제일의 복전이다. 이는 生天의 淨路를 여는 것이다.”라 하고 《賢愚經》을 인용하여 “출가자와 재가자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효순하라.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그 공덕을 꾀하는 가장 뛰어난 것으로 헤아리기 어렵다.”라 했다.

명나라 屠隆의 《不法金湯錄》에도 “一人成道하면 九族이 하늘에 태어난다.”는 문구를 들어 유교의 물질 봉양과 불교의 효양을 대비하고 있다.

불교는 그 효가 모든 중생에게 미치는 것이다. “一子出家九族生天”이라 하는 것은 유교적 불교의 표현법이다.

- |          |      |          |      |
|----------|------|----------|------|
| 204 父母事長 | 마르치믈 | 205 高聲하야 | 對答하고 |
| 206 聳動獄의 | 떠러져서 | 207 쇠눅인물 | 沐浴하니 |
| 208 녹논苦生 | 難當이오 | 209 罪畢後에 | 스름되나 |
| 210 連語聲이 | 分明찬고 | 211 손뼉더고 | 經冊보던 |

〈奠說因果曲〉(天道頌)

父母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不敬하면 지옥 중에서도 용동옥에 떨어져서 쇠눅인 물로 목욕하게 되고 다시 人道還生하더라도 언어가 분명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增一阿含經》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부모에게 孝順하고 공양하는 공덕 과보는 일생보치의 보살에게 공양함과 같다. 또 아버지를 왼쪽 어깨 위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 위에 업어 천만년 동안 부모에게 의복·음식·상좌·와구·의약을 공양한다. 만약 부모가 어깨 위에서 똥 오줌을 싸도 불평없이 효도를 다해도 역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일곱 가지 보화가 풍부한 대지의 지배권(왕권)에 오르게 해도 아직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셔 은혜에 다 보답한 것이 아니다. 왜그러나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수 많은 방법으로 자식들을 보호하고 길러 이 세상을 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 IV. 佛敎의 孝思想과 衆生敎化

儒敎思想의 概念 또는 德目이 五倫으로 표현되는 것은 儒敎思想이 지닌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儒敎에서는 人間의 社會生活, 즉 두 사람이상이 살아가는 데 가장 核心이 되는 思想을 〈仁〉이라 표현하고 그 〈仁〉의 실천 원리를 孝悌라고 하여 孝道를 核心的인 實踐 原理로 보고 있다.

佛敎에서도 孝思想이 강조되고 있는 바, 人間의 현 存在은 무수한 因緣의 恩惠로 可能하다고 본다. 여기에 佛敎의 보은사상이 나타나며, 그 恩惠 가운데 父母와 중생의 恩惠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佛敎의 이상적 인간상의 인격적 속성은 〈지혜롭고 자비로움〉, 즉 〈밝고 따듯함〉이다. 이 智慧롭고 慈悲로움은 주체적인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孝思想은 궁극적 자각에서 일어나는 智慧와 慈悲에서만 그 정당성이 確保되며,<sup>56)</sup> 무엇보다도 佛敎에서 말하는 孝思想은 깨우침이 진정한 孝道로 나타나는 것이다.

佛敎의 孝精神은 人間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愛人思想이며, 이것은 佛敎思想에서 만민이 一切 平等한 佛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人間을 尊敬하는 思想이므로, 이와 같은 思想은 現代社會의 황금 만능주의·이기주의·기능주의와 인간 경시사상 및 인간의 閉鎖性 등에 대한 방과제가 되고 인간이 황금경제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질화되고 병든 現代

56) 朴先榮, 註3), pp.55-62.

社會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理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孝思想에 기초한 教育은 사람을 사람답게 교도하고 養育하는 것이 될 것이다.

儒敎에 있어서 生命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空間的으로 擴充시켜 나갈 수 있게 한 道德의 根本的 自覺은 다름아닌 孝이었던 것이다.

佛敎에서는 “原始와 大·小乘을 莫論하고 人生의 現實을 <괴로우음>이라고 하여 일단 否定的인 入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sup>57)</sup> 이러한 現實苦觀을 各 經典에서 例證해 보면, “어떤 것들이 賢者의 苦諦인가. 生으로 괴롭고, 늙어서 괴로우며, 병들어 괴롭고, 죽게 되어 괴로우며, 슬프게도 서로 만나지 못해 괴롭고, 이별의 슬픔으로 괴로우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 이 또한 괴로우이다.”<sup>58)</sup> 이러한 佛敎의 現實苦觀은 단순한 現實의 否定이나 悲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現實에 대한 無批判的 受容은 人間을 惰性에 머물게 할 것이다. 오히려 佛敎의 現實苦觀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方向을 전개시켜 주는 契機로 理解되어야 한다. 그 곳에는 새로운 삶을 創造토록 촉구하는 意義가 內在해 있는 것이다.

佛敎에서의 理想은 常·樂·我·淨에로의 涅槃이요 解脫이다.<sup>59)</sup> 이러한 涅槃解脫을 證得한 자가 佛陀, 즉 <깨달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佛敎의 이상세계는 깨달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勿論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四禪觀을 위시하여 많은 修練을 겪어야 되겠지만 깨달음 그 자체는 漸進的인 것이 아니고 人間의 精神 세계에서 刹那的인 飛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은 知識의 累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佛敎의 教育의 목적은 자각을 통한 涅槃·解脫인 바, 이에 도달한 佛敎의 이상적 人間으로서의 佛陀는 知識의 累積者나 持能의 所有者로서의 人間이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完成人의 경지에서서의 자아 발견자요, 그 자아의 실현자인 것이다.<sup>60)</sup> 따라서 “이러한 精神啓發은 자기의 本心과 본질을 찾아내어 精神의 자유를 얻는 내면적인 <人格完成>을 의미한다.”<sup>61)</sup>

佛敎에서는 孝를 因果的·報恩의 行爲라고 思惟하여 大乘佛敎가 主唱하

57) 朴先榮, 註7), p.81.

58) 《佛說四諦經》, 大正1, p.814. “何等爲賢者苦諦 從生苦 從老苦 爲病苦 爲死苦 不哀相逢苦 離哀苦 所求不得 是亦苦”.

59) 《大般涅槃經》, 大正, 12, pp.371-397.

60) 孫仁鉄, 《韓國佛敎思想史》, 載東文化社, 1964, p.49.

61) 上揭書, p.49

는 一切衆生 悉有佛性의 觀點에서 孝는 父子라는 從屬關係를 超越하여 一如平等的 境地에서 追求되는 것이다.<sup>62)</sup> 孝는 儒敎에서만 아니라 佛敎에서도 萬行의 根本戒로서 父母에 對한 奉養뿐만 아니라 父母를 成佛케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佛敎에서는 孝를 父母로 하여금 三寶를 믿게 하여 成佛시키는 大孝와 肉體의·世俗의인 小孝 등 二孝로 區分하였다. 더 나아가서 佛敎는 “山川草木一切 是我父母”라는 觀念아래 山川草木에서 微物에 이르기까지 父母를 恭敬하듯 사랑하라는 博愛慈悲心을 人間에게 注入시키려 했던 것이다.

大乘佛敎에서는 “煩惱가 바로 智慧이다”, “娑婆世界가 곧 淨土이다”, “生死가 바로 涅槃이다”라는 말 등은 다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과 이상은 “現實即理想이요 理想即現實이다. 깨닫지 못하면 現實苦요 깨달으면 現實苦가 그대로 理想樂이다.”<sup>63)</sup>

위에서 말한 바, 自覺을 통한 常·樂·我·淨의 涅槃解脫은 佛敎敎育의 個人的 目的으로서 <人格完成>의 성격을 뜻하는 것이다.

佛敎의 慈悲思想은 無我思想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또 佛敎에서는 이 “자비에 대해서 慈는 <與樂>으로 표현되고 있고, 悲는 <拔苦> 또는 <受苦> 등으로 解說되고 있다”<sup>64)</sup> 佛敎의 慈悲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 주거나 함께 하는 삶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慈悲는 <智慧> 즉 無常·無我·緣起 등을 깨달음으로써 나타나는 정신적 불빛인 동시에 그것을 체험적으로 실현하는 實踐知로서의 <智慧>에 밀받침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참다운 慈悲”<sup>65)</sup>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佛敎의 慈悲가 本質的으로 敎導性을 지니는 敎育的 사랑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智慧롭고 자비로운 自由人>, 즉 <밝고 따뜻한 主體的 人間>을 형성

시키기 위한 佛敎의 敎育에는 <밝고 바른 깨달음>에 의해 발휘되는 智慧를 바탕으로 한 자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는 효사상의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그 본질은 무엇이며 한민족의 역사 속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형태적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62) 道端良秀, 佛敎와 實踐倫理, <唐代 佛敎史研究>.

63) 車錫基, <韓國傳來敎育思想의 研究課題>, 高大文化 第 13輯, 1971, p.86.

64) 楊貞圭, <“原始佛敎”, 그 思想과 生活倫理>, 比峰出版社, 1981, pp.133-140 參照.

65) 朴先榮, 註7), p.60.

현대적 의의는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모두 함께 고뇌하는 가운데 한국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새로운 디딤돌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구의 문물을 자주적 생활체계 하에서 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아래 孝敎育의 부재현상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정신문화적인 서식처를 스스로 마련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없었다.

현대의 산업화·공업화는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즉 고차원적인 물질문명의 발달은 도덕적인 가치마저 금전으로 환산하려는 사고방식을 조장하였고, 효사상의 밑바탕마저 흔들어 놓고 말았다. 따라서 물질 만능적으로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확산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규범을 퇴색시키는 데에 이르렀다. 그로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효의 올바른 인식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 V. 結 論

高麗末期(西往歌)로부터 출발하여 朝鮮時代를 거쳐 최근까지 면면히 계승되어 온 佛敎歌辭는 주로 승려들에 의해 창작되어 불교 신도들에게 佛德을 예찬하고 佛法修行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불교가사에는 淨土思想·因果思想·勸佛思想·無常思想과 孝思想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本稿에서는 《韓國佛敎歌辭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70편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가사에 나타난 불교적 孝思想에 대해 살펴 보았다.

佛敎에서도 孝思想이 강조되어 있는 바, 人間의 現存在는 무수한 인연의 恩惠로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 佛敎의 보은사상이 나타나며, 그 은혜 가운데 父母와 衆生의 은혜를 증시하고 있다.

佛敎에서는 知恩報恩으로 四種大恩에 報恩하는 것으로 理想的 基底는 輪廻轉生의 緣起法上에 一切衆生이 우리 祖上 父母兄弟 아님이 없고, 人間心性은 空으로 自性空은 智慧이며 慈悲이기 때문에 智慧의 눈으로 人間들에게 내 마음 내 몸처럼 慈悲를 베푸는 것이 孝의 本質이라는 것이다.

세속에서의 孝도 勿論 孝이지만, 그것은 眞情하고 究竟인 孝는 되지 못하므로 佛法을 信奉하여 諸惡을 莫作하고 衆善을 奉行케 하며, 究竟에는 삶의 도리를 완수하여 불타가 되게 하면 진실한 보은이며, 이것이 곧 父母에 대한 보은이므로 그 은혜의 보답은 역시 無苦安穩의 경지, 인간 최고의 지위인 불타가 되게 하는 것이라 했다.

佛敎에서도 孝에 대해서 儒敎와 同一한 견해, 즉 父母 死後의 孝보다 父母 生時의 孝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父母의 恩德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쳐 奉養해야 된다는 것이다.

佛敎에서는 儒敎와 마찬가지로 孝를 중시하고 있으며, 그 形態나 方法에 多少 差異가 있으나 相互一致되는 점이 많은데, 다만 佛敎의 孝는 儒敎에 비하여 根本的으로는 영원과 무한에 걸친 종교적 차원에서 있다 할 것이다.

佛敎歌辭에 나타난 孝思想을 크게 相對性的의 孝와 同質性的의 孝로 구분하여 考察해 보았다. 相對性的의 孝는 世孝와 出世孝, 그리고 單孝와 廣孝로 분류하였고, 孝思想의 同質性的의 孝는 事孝와 理孝, 그리고 行孝와 化孝로 분류하였다.

佛敎歌辭 속에 孝恩이 골고루 나타나 있으나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은 <奠說因果曲>인데 여기에는 世孝·行孝·化孝가 현저하게 나타나 있고, <勸善曲>에는 出世孝·廣孝, <善心歌>에는 單孝, <回心曲>에는 理孝, <別回心曲>에는 事孝가 각각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었다.

현대의 고차원적인 물질문명의 발달은 道德的인 價値마저 금전으로 환산하려는 사고방식을 조장하였고, 孝思想의 밑바탕마저 흔들여 놓고 말았다. 따라서 물질 만능적으로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확산은 우리의 傳統的인 倫理規範을 퇴색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孝의 올바른 認識과 實踐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參 考 文 獻

- 金基平, 〈孝道에 관한 研究〉, 《公州教大 論文集》, 第12輯, 1975.
- 金大隱, 〈忠과 孝에 對하여〉, 《梵聲》, 47號, 1977.
- 金圓卿, 〈韓國詩歌上的 儒學思想研究〉,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9.
-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瑞文堂, 1977.
- 金周坤, 《韓國佛教歌辭研究》, 集文堂, 1994.
- 大韓教育文化研究所 編, 《現代人的 忠孝思想》, 1977.
- 道端良秀 著, 목정배 옮김, 《불교의 효, 유교의 효》, 불교시대사, 1994.
- 東國大 韓國文化研究所 編, 《韓國文學의 思想的 研究》(上), 1981.
- 朴光榮, 〈宗教에서의 忠孝思想〉, 《梵聲》, 48號, 1977.
- 釋 知性 著, 凡然 譯, 《地藏經의 孝思想》, 초룽, 1993.
- 성규학,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손석우, 《효도》(상), 태백 문화사, 1981.
- 辛章善, 〈儒敎와 佛敎의 孝思想 比較〉, 東國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尹聖範, 《孝》, 서울文化社, 1973.
- 尹亨德, 〈歌辭文學에 나타난 忠孝思想〉, 忠州工專大論文集 第11輯, 1978.
- 李能和, 《佛敎通史》, 新文館, 1918.
- 李良求, 〈孝에 관한 比較研究〉,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0.
- 李成九, 〈古時調에 나타난 孝〉, 명지실업전문대논문집, 第1輯, 1975.
- 全福奎, 〈古時調에 나타난 孝思想 考察〉, 仁川專門大 論文集, 第16輯, 1991.
- 피천득 외, 《효 에세이 37인집》, 범우사, 1977.
- 한태현, 《한국의 효와 효행》, 남산, 1990.